

인터뷰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추밀공파 37세)
대담자: 사무총장 권오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 성숙한 민주주의로 도약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광장 민주주의를 통해 높아진 국민적 정치관심과 참여 열기를 ‘동네 민주주의’로 전환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선거 슬로건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어 생활주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선거로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행복해지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권오운 사무총장: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투·개표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여러 가지 선거정보를 제 때에 제공하고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선거서비스를 확대하여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사무를 구현할 것입니다. 국민 소통을 강화하여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공약개발을 지원하는 등 정책선거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지역정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중대선거범죄와 지역도착형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를 실현할 것입니다.

(중대선거범죄) ①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 행위 ②공무원의 선거관련행위 ③비방·허위 사실 공표행위 (지역도착형 불법행위) ①동향회·향우회·산악회 등 지역적 연고가 있는 단체의 선거관련행위 ②도토세력과의 유착에 의한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 행위 ③선거브로커 및 지역 언론(여론조사 포함)의 위법행위 등

권오운 사무총장: 공명선거 관리에 있어 인터넷 사이버 상에서 가짜뉴스나 소위 댓글부대의 댓글전성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곤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가짜뉴스는 왜곡된 선거정보의 전달로 선거분위기를 크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끼쳐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상 자유로운 정치적 의견 개진 등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이를 악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비방·흑색선전에 대하여는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중앙과 각 시·도에 18개팀 200여 명의 ‘비방·흑색선전 TP팀’을 편성·운영하고 있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400여 명을 활용하여 사이버상 위법계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400여 개 언론·포털사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전용 신고사이트 ‘아름다운 선거 지킴이(www.nec1390.com)’ 신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사이버선거범죄에 총



권오운 사무총장: “유권자를 무서워하는 정치인을 뽑고, 정치인이 무서워하는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치를 싫어해서 투표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우선 정책선거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선거의 효능감을 높여야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모여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선거참여도 높아질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민주시민의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선거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민주화, 사회·경제적 다원화와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남북 대치상황 지속 등에 따라 이념·세대·지역·계층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회화 갈등은 제도적·민주적으로 수렴하여 해소할 수 있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정착되는 것은 아니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유지·발전하는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그 효과가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되므로 학교에서부터 미래 유권자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여 민주시민의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2017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영국 이코노미스트)
○ 우리나라는 전 세계 167개국 중 20위로 ‘결합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됨.
○ 선거과정의 투명성(9.17)이나 시민의 자유(8.24) 분야의 점수는 높았으나, 정치참여(7.22)와 정치문화(7.50)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권오운 사무총장: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실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선관위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민주선거(1948. 5. 10.) 70년을 맞이하여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의 날 행사, 선거 70가지 이야기, 기념우표 발행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5. 10. KBS홀

에서 개최 예정인 ‘유권자의 날’ 행사에는 각계의 유권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투·개표 장비 시연·체험, 선거기록사진 전시 및 정책선거영상 상영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하여 투표참여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정치추세인 스웨덴의 ‘알메달렌 정치박람회’를 벤치마킹하여 정치·문화·학술대회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한국형 정치박람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정치박람회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 소통과 정책 홍보의 장을 제공하고, 무거운 정치를 휴양 대중문화와 접목하여 국민다수가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정치체험학습의 장(Platform)을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형 정치박람회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정당정치를 실현하여 성숙한 민주주의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오운 사무총장: 기본적인 질문 같지만 100만 국민들을 위해 질문 드린다면, 대법원은 사법부 소속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서로 하는 일이 다른 것 같은데, 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지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는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역사적 교훈에 따라 제5차 개헌을 통해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창설된 헌법기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되는데,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모두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균형 감각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관 재직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하여 민주정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오운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앞으로의 의의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참여와 축제의 장에서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선거결과에 모두가 승복하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선거’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정착시킬 것입니다. 투·개표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투표편의를 증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력〉

- ▶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여년간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서 여러 집단의 다양한 재판업무에 헌신
- ▶ 해박한 법률지식을 인정받아 3년 동안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대법원의 판례이론 발전에 기여
- ▶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증권투자 권유자 책임론’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였으며, 30여 편의 논문을 저술하여 재판실무 발전에 기여
- ▶ 비법관 재판연구관 제도, 재판연구원 제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등의 도입 및 정착에 기여하고 사법정책연구원 설립을 주도
- ▶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과 절제된 행동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으며, 항상 소탈하고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으로 구성원 사이에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냄
- ▶ 2004년경부터는 탈북민 대안학교 중 하나인 ‘셋넷학교’와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도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연 120만원)을 기부하고 있으며, 대안고급 수석부장관사 재임 중에는 자원봉사회를 구성하여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
- ▶ 연설이 가능할 정도로 영어에 능통하며, 독일어와 일어도 소통 가능

진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국민을 위한 선관위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선거관리를 한 위원장, 동료 위원들과 지혜를 모아 협력한 위원장, 직원들의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위원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권오운 사무총장: 위원장님의 좌우명과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지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정의를 실현하는데 머뭇거리지 마라’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앙선거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중립과 공정이라는 공직관을 바탕으로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원 내 등산동호회 회장으로서 평소 등산을 통해 건강을 다지고 있습니다.

권오운 사무총장: 위원장님은 안동권문의 자랑스러운 신세대와 100만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안동권문의 자랑스러운 신세대 여러분, 자기 자신과 집안만을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주변 이웃을 생각하고,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100만 국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권오운 사무총장: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바빠실 텐데, 특별히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늦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요즘은 근황은 어떠신지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대법관으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오는 6월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완벽히 관리하여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오운 사무총장: 어렵고 힘든 공무를 수행하시면서도 법학박사 학위까지 취득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계기가 있으시면 그 계기와 학위는 문 좀 간략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법률지식과 종전의 관례를 익히는 것만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학박사로서 항상 연구하고 정진하는 자세로 30여 편의 논문을 저술하는 등 학문적 성과를 판례 발전에 위해 사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법률가이자 지식인으로서 반성하는 뜻에서 증권법, 자본시장법 등을 연구하여 ‘증권투자 권유자 책임론’이라는 저서를 출간하고,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의무에 관한 관례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권오운 사무총장: 위원장님은 법률이론과 재판실무 모두 능통하고 업무처리에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장님의 법 철학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법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명의식과 정의관념, 정렴성, 도덕성, 국민과 소통하며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률가는 정치가가 아니므로 설득과 중지로 바른길을 찾아가야 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오운 사무총장: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취임사에서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



세부법인 화인

대표사무사: 권혁창 (權赫昶) (010-3680-5057) 북야공파36대

업무내용

1. 세무업무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2. 세무업무 기장대리
3.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4. 재산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5. 법인설립(창업), 기업합병 상담

〈본사〉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근무사무사: 권혁창, 정부혜

〈동부지점〉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업무동 10층 15,16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
근무사무사: 정대성, 김병재

〈강원지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
Tel) 033-375-7768
근무사무사: 김인섭

7명의 경력변호사가 여러분을 섬깁니다!

청주의 법률심김이(청주LAW)로서 청주의 김집이(淸州路)가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을 청주로 옮깁니다.



공중임가 청주로
법무법인 CHEONGJU LAW

대표변호사 권태호

- 안동권씨 추밀공파 33세손
- 안동권씨 대종원 부총재(현)
- 안동권씨 충청북도 중흥회장(현)
- 춘천지검장/대전고검차장검사
- 청주지검/인천지검 차장검사
- 서울동부/부산/광주지검 부장검사
- 서울/대구/부산/광주고검 검사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
- 대검찰청 과장, 법무부 검사
- 인사(초대)/충주지청장

구성원 변호사

대표변호사	유재홍	변호사	박종일
대표변호사	김준희	변호사	조성훈
변호사	오원근	변호사	권종원(제천)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산남동657) 인텔변호사빌딩 7F(신법원 정문앞 네거리)

TEL. 043-290-4000(대표전화) FAX. 043-290-4050

www.cjlaw.co.kr

민사/형사/행정/가사/군사 등 소송업무 일체, 기업체 법률자문, 외국법 자문
외국인 자문 및 대리, 등기/공증/세무 등 모든 법률업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